

해남군-필리핀 딸락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MOU체결

해남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올해 147명 배정 "농업 경영환경 안정·지역 농어업 지속 가능성 확보에 일조"

해남군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25일 필리핀 딸락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남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필리핀에서 방문한 수잔압 딸락 주지사, 레이첼 델 마르 국회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필리핀 딸락주에서는 우수인력을 선발, 사전 적응 훈련을 통해 해남 농어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남군에서는 필리핀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선진 농어업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MOU 체결로 농어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필리핀 딸락주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농어업교류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잔압 딸락주지사는 "한국 농어촌에 일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

로 딸락주를 선택해 준데 감사를 표한다"며 "필리핀 청년들이 한국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으로, 법무부 배정 심사 결과에 따라 147명을 배정받아 10월부터 입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관내 34개 김공장에 취업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6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치솟는 인건비와 인력난에 이종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군, 강진만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강진군은 8월 26일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유미자 부군수와 김승남 국회의원, 차영수 도의원, 김보미 군의장, 박범석 수협장, 수자원공사 환경유역과장, 수산 관계자, 어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패류 감소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미자 부군수는 "강진원 군수께서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 꼭 참석하시고자 했지만, 9월 중 확정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안부 차관을 만나러가셨다"며 "강진 어업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민선 6기에 시작된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이 장장 4년 8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서야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 부군수는 또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전체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

겠지만, 생업을 포기 당한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 차원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적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군은 패류 생산감소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어업인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비 8억 3천 2백만 원에 대해 50%씩 분담하였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조사용역을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 본 용역은 강진만 각종 사업(장흥댐, 간척·매립 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물변화, 염분 변화 등 패류 감소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해 패류 감소 피해 산정을 위한 원인 규명조사로, 추후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2017년, 재임 중이었던 강진원 군수의 어업인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작된 조사용역으로, 5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추석 '임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실시

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표고버섯, 고사리, 대추, 밤 등 임산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흥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9월 2일부터 7일까지로, 정남

진장흥도요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등 임산물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합동 단속반은 임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허위 과대포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서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올바른 거래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아리랑물, 농수특산물 전 품목 20% 특별 할인 40개 업체 150여개 모든 품목...1인당 2만원까지 할인 혜택

진도군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물'에서 오는 9월 5일(월)까지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 특별전은 보배섬 진도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 40개 업체, 150여개 모든 품목에 대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인당 할인금액은 최대 2만원으로 9월 5일(월) 주문 물품까지 택배업체에서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 특히 추석 행사 기간 중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구매자 1~3위는 한우세트, 4~10위는 전복세트, 11~20위는 보배쌀을 증정한다. 또 추석 구매 후기를 작성한 20명에게 진도아리랑물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며, 구매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산들바람 참살(1kg)도 제공한다. 진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진도아리랑쇼핑몰'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중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진도군수 품질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정청지역에서 생산된 전복, 멸치, 김, 미역, 다시마를 비롯해 구기자, 울금, 검정쌀,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 150여개 품목을 엄선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9월 7일까지 2022년 사회조사 실시 828가구 대상으로 45개 문항 조사

완도군은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관내 표본가구를 선정된 828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전라남도·완도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69개 조사구, 828가구의 만 15세 이상(2007. 8. 26.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다. 조사 항목은 총 45개 문항으로 전라남도 공통 항목인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30개 문항과 완도군 특성 항목인 해양치유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 15개 문항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응답자를 직접 만나기가 힘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표를 배부하여 응답자가 작성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한다. 군은 정확한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지침과 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에 대한 통계 조사 사전 교육을 지난 19일, 22일에 진행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